

스포츠P&P  
스포츠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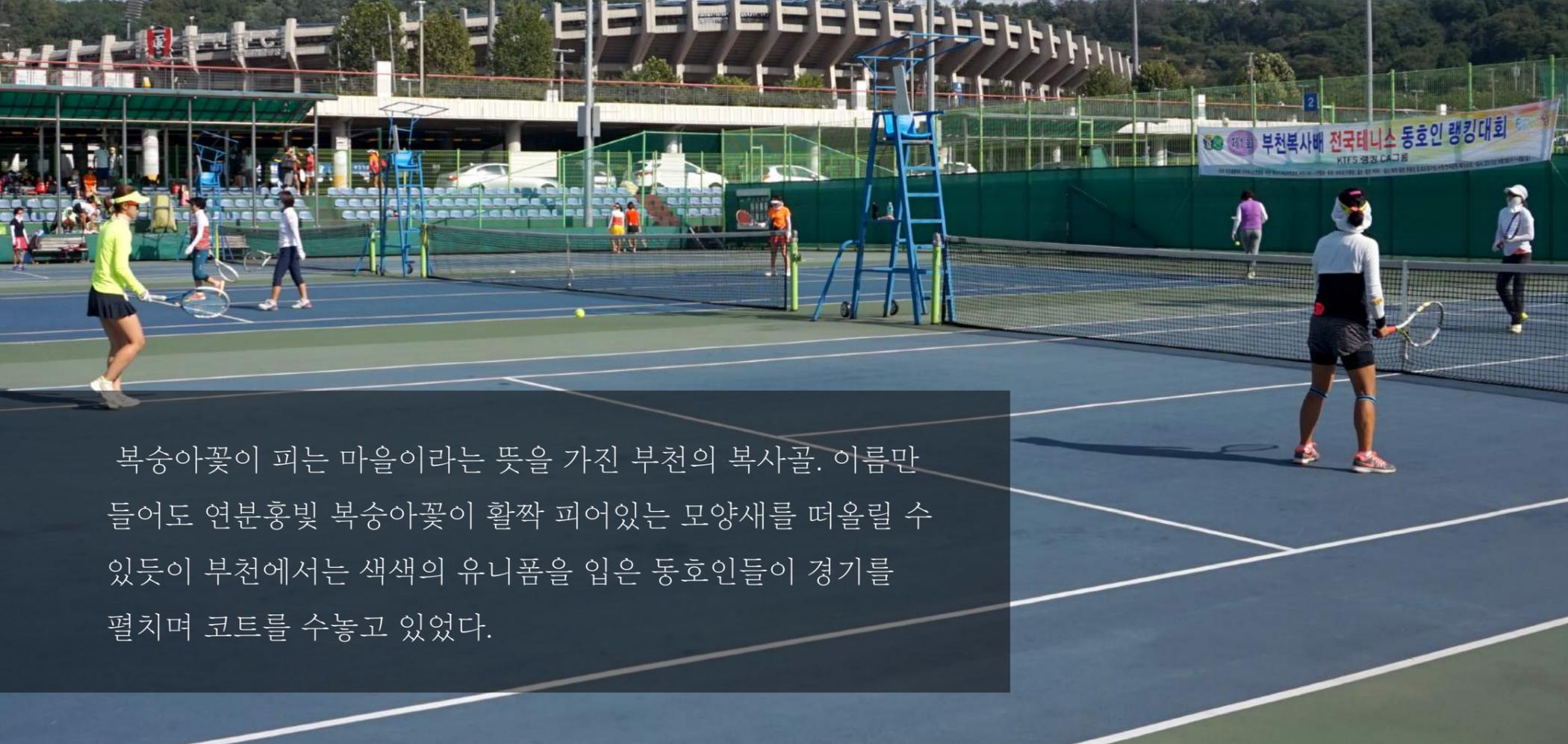
**스포츠**

**PEOPLE & PLAYER**

가을 코트에 피어난 꽃들의 승부

# 가을 코트에 피어난 꽃들의 승부

부천 복사배 테니스 동호인 랭킹 대회 현장



복숭아꽃이 피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부천의 복사골. 이름만 들어도 연분홍빛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있는 모양새를 떠올릴 수 있듯이 부천에서는 색색의 유니폼을 입은 동호인들이 경기를 펼치며 코트를 수놓고 있었다.

다른 종목과 다르게 테니스에서는 여성 테니스 동호인들의 경기를 특별한 이름으로 부른다. 개나리, 국화와 같이 꽃의 이름을 빌려와 구분하는 것. 대회를 찾아간 날 열린 개나리부의 경기는 테니스 대회 우승 경력이 없는 여성 동호인들의 복식 경기를 말한다.

갓 피어난 개나리처럼 승부를 겨루는 사람들의 얼굴은 물론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시종일관 꽃처럼 해사한 웃음이 피어나는 현장이었다.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한 복사골 동호인 랭킹 대회는 총 랭킹 포인트 250 포인트가 걸려있는 대회.

대회마다 포인트가 다르지만 포인트가 높을수록 큰 규모의 대회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 부천 종합 운동장 맞은편에 위치한 시립 테니스장. 경기관에 보기드문 대규모 코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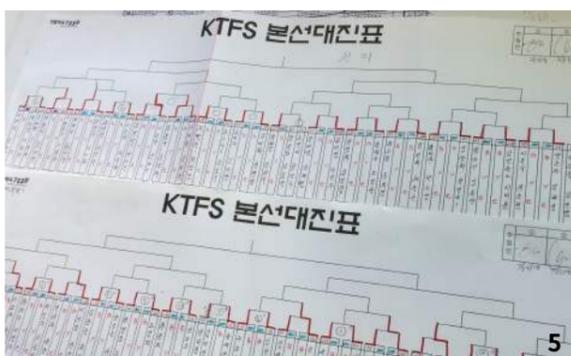
부천 종합 운동장 내에 위치한 시립 테니스장을 주 경기장으로 하고 그 외에 보조경기장을 합치면 총 40면을 한꺼번에 사용해 5일간 진행되는 큰 규모라고 한다. 하루 600명의 동호인이 그간 같고 닦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다.

이번에 열리는 첫 대회를 시작으로 경기권을 대표하는 동호인 대회로 발전할 것이라는 서영익 대회장의 이야기다.

1.2.3. 내리쬐는 햇볕은 피부 건강의 적! 태양을 피하기 위한 여성 동호인들의 다양한 패션^^



마이크를 통해 토너먼트 대진 결과가 전해지고, 아침부터 진행되어온 1회전 경기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각. 경기 결과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과 코트를 오가는 사람들로 분주한 경기장 사이에서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 4. 방송실에서는 경기 결과를 호명하느라 분주하네요~
- 5. 두근두근 설레이는 개나리부 참가 명단표
- 6.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승부를 가름짓는데 도움을 주는 스코어 보드

## | 우리는 이웃 사촌 복식조

Q. 두 분의 사이가 친밀해보이는데... 혹시 어떤 관계신지?

A. "저희요? 저희 같은 동네 살아요 (웃음) 아파트 단지 안에 테니스 코트가 있잖아요. 테니스장에서 이웃 사촌끼리 만났죠. 아파트 단지 중간에 테니스 코트가 있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누가 테니스 치는지 보여요.

요즘 재개발 되는 데는 공원이랑 산책로는 잘 꾸며 놓던데 테니스장이 가운데이 있는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이웃사촌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곳이에요. 테니스는 매일 치는 운동이니까 가까운 곳에서 얼굴도 매일 보고 더 친해질 수 있어요."



▲ 테니스로 하나된 이웃사촌 복식조

Q. 오늘 두 분 경기 결과는 어땠는지?

A. "우리가 같이 파트너 한지 4,5번 밖에 경기 만나왔어요. 1회전에서 탈락했어요. (웃음) 우리의 역량을 다 못 보여준게 가장 아쉽고 가장 큰 패배 요인은 우리보다 상대의 실력이 더 좋았다는 거겠죠. 저희보다 구력이 있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겨우겨우 넘기는 거면 구력 있는 분들은 몇 번 더 넘겨요. 몇 번 대회 나와보니까 구력 더 쌓고 경험을 많이 해봐야겠다 오기가 들어요. 사실 테니스 치는 사람들한테 4,5년 친 건 경력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갓 걸음마 떼는 수준에서 대회에 나온 거예요. 덤벼든거죠. 이런 승부가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잘하겠다는 욕심이 생기니까 하체 힘을 길러야겠다 싶어서 자전거를 타볼까 생각해요. 열정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 키모니가 준비한 깜짝 선물! 현장에서 스포츠 양말과 그립을 나눠드렸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니까 저는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밝아지고 즐겁고 몸무게는 안줄었는데 살빠진 것 같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육이 생기고 자연이 몸에 탄력이 생기니까. 체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뛰어도 10분 레슨 받으면 지쳐 떨어졌는데 요즘은 한 시간은 거뜬해요. 속으로 레슨 더 해주시지... 생각도 하고요.”

**Q.** 대회장에서는 선수지만 집에 돌아가면 주부!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지?

**A.**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하죠. 너무 많은 시간을 가정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할애하는게 느껴지나봐요.

가족한테 미안하기도 하지만 제가 좋아서 하는 운동이고 또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처음에 아파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살짝 건강이 안좋기도하고 아이들이 다 크고 집에서 빈둥지를 지키다보니 우울증이 오는 것만 같았죠.

**Q.** 테니스만이 가진 매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A.** "파트너랑 함께 하는 운동이잖아요. 내 몸이 피곤하면 게을러 질 수 있는데 파트너 때문에라도 뛰어야 하고 상대가 넘긴 공을 따라 뛰어야 하니까 움직일 수 밖에 없어요. 헬스나 다른 운동은 지겹고 이루해서 오래 못했어요. 테니스는 이기면 이기는대로 재밌어서 또 하고 지면 지는대로 이기고 싶다 지지않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매력이 있어요.“

## | 서울에서 왔어요~ 대회 참가 새내기 복식조

Q. 오늘 경기 결과는 어땠는지?

A. 작전 상 후퇴? (웃음) 대회 출전한지는 얼마 안됐어요. 테니스도 7년 정도 쳤는데 쉬엄쉬엄 쳐서 아직은 대회에서 이기는 것보다 경험하려고 하는 게 크죠. 지금 가을로 넘어가는 시즌에 시작하는 대회들이 많아요. 가을이 가장 공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Q. 테니스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A. "건강이 안좋아져서 권유 받았어요. 제가 체중이 덜나가고 혈압도 낮으니까 심폐기능을 좋게 하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해서 시작했어요. 테니스는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Q. 테니스가 가진 매력이 있다면?

A. "테니스는 늘 어렵고 안돼서 재미있어요. 목표 달성이 빨리 되면 해치우고 말아버리는데 계속 안되니까 오기가 나서 계속 하게 돼요."

"다른 것보다 테니스는 멘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거의 한 7,80퍼센트 정도? 순간 판단력을 요하는 운동이라서 순간적으로 공을 어떻게 보낼 건지 많이 쳐보고 대회 많이 나가는 선수들은 공을 보면 어떻게 쳐야겠구나 공략을 하던데. 저희같은 초심자들은 그런게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죠."

**kimony**

키모니 공식질문!

동호인들에게 묻는다.

# 나에게 테니스 란?

나에게 테니스는 **에너지**이다.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 하기 힘들고 싫잖아요. 테니스 복을 입는 순간 힘이 생겨요. 나가서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활력소고 에너지예요.

나에게 테니스는 **도전**이다.

매번 새로운걸 배워요. 항상 칠 때마다 미세한 차이를 느껴요. 칠수록 더 알 것 같으니까 자꾸 자꾸 시작하게 되는거죠.

나에게 테니스는 **웬수**다.

하자니 힘들고 안하자니 재미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테니스는 **숙제**다.

안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평생 해야 하는 숙제예요.

나에게 테니스는 **마약**이다.

팔꿈치가 항상 아파요. 그런데도 대회가 있어서 나왔잖아요. 자꾸 중독되는 마약 같아요.

**kimony**

The image features a white background with a decorative graphic in the bottom right corner. This graphic consists of several overlapping geometric shapes in shades of blue, including a large bright blue triangle and a smaller, darker blue triangle, creating a modern, abstract design.